

▲ 세진농산 직원들과 포즈를 취한 Roy씨 (왼쪽 4 번째)

한국의 양돈을 배운다

인도인 Roy씨 세진농산에서 양돈기술 익혀

세진농산에서 앞서가는 한국의 양돈기술을 배우는 인도의 젊은이가 있다.

올해 31세로 인도의 켈커타 대학과 푸나 대학에서 과학과 농업을 전공한 석사 출신의 Supriyo Roy씨.

시원한 눈매와 구렛나루가 일품인 그는 앞으로 농촌지도자가 되어 낙후된 인도의 농촌을 부흥시키는 것이 꿈이다.

인도의 총 인구는 약 8억명. 그중 힌두교가 80%를 차지하고 기독교도가 4%, 나머지는 이슬람교도라 한다.

인도에는 1,662개의 방언이 있으며 그중 공용어만도 16개

에 달하는데 공식석상에서는 주로 영어를 사용한다. 인도에는 소를 숭배하는 힌두교도가 절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 나라와는 정반대로 쇠고기가 가장 싸고 양고기가 가장 비싸다. 그러나 양고기와 더불어 돼지고기와 닭고기도 많이 먹는다.

인도의 양돈산업은 매우 뒤떨어져 있다. Roy씨의 말을 듣고 있노라면, 현재 인도의 양돈산업은 우리 나라의 60년대 초와 비슷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농촌에 개량종 돼지는 거의 보급되어 있지 않고 토종돼지

취재 : 김 동 성

인 Byna Pig와 오스트렐리아에서 옛날에 들여온 Australian Pig이란 돼지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나, 이들의 능력은 극히 떨어져 1년에 새끼를 1회 밖에 생산하지 못하고 있고 90kg까지 크는데도 200일 이상이 걸린다고 한다. 또 배합사료도 일부 생산되기는 하나 극히 일부분이고 거의다 농산 부산물을 이용한 자급사료에 의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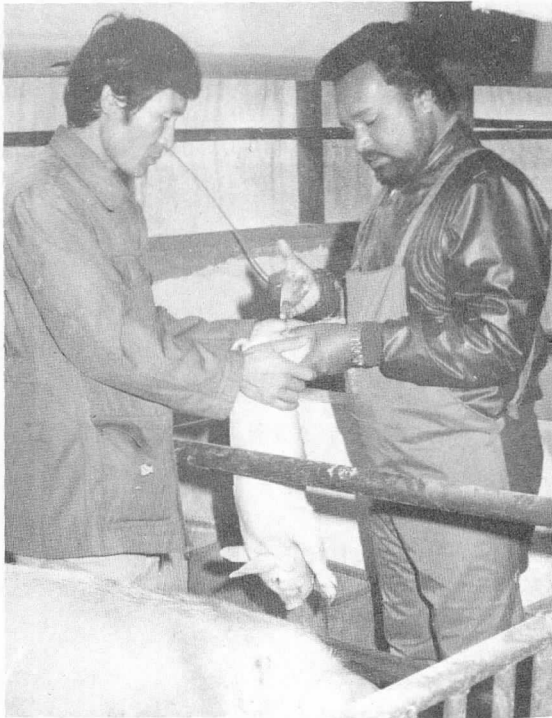
Roy씨는 지난 5월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박사의 초청으로 한국에 왔다. 기독교 신자인 그는 인도에 기독교를 전파하고 농촌을 잘 살게 하기위



▲ 오세진 사장이 양돈관계 원서를 이용해 양돈의 기본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해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4개월간 교육을 받았다. 그후 그는 본회의 소개로 10월 14일부터 11월 13일까지 1개월간의 예정으로 세진농산에서 양돈기술을 배우고 있다.

세진농산의 오세진 사장은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깊이있는 양돈기술을 가르치지 못하고 돈사의 설계와 양돈의 전반적인 사항들을 이해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실습을 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 방욱문 생산과장 대리가 Roy씨에게 백신접종 방법을 가르치고 있다.

기자가 Roy씨의 실습 광경을 취재하기 위해 세진농산을 찾은 11월 초순, Roy씨는 벌써 직원들과 친해져 있었고 이경덕 부장과 방욱문 대리가 가르쳐 준 주사놓는 법, 중부시키는 법, 새끼받는 법, 사료주는 법 등 돼지를 관리하는 방법을 시험해 보이는 여유를 보이기도.

그는 요즈음 인도의 캘커타에 가나안 농군학교와 같은 교육 시설을 만들어 인도의 청년들에게 기독교를 전파하고 양돈기술을 가르쳐 인도 전역에 보급시킬 꿈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

“한국은 4계절이 뚜렷하고 경치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또 한국 사람들은 부지런하고 너무 열심히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친절하고요.” “세진농산에서 배운 양돈기술은 인도의 농촌경제발전에 획기적인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추위를 무척 타는 작업복 차림의 Roy씨는 앞으로 한국에서 개량된 돼지와 인력을 1명 파견 해주면 양돈장의 설립과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며 한국 양돈업계에 도움을 청하기도 했다.